

전국 국립공원 해빙기 ‘낙석 주의보’...아는 길도 살피 가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점검

무등산 급경사지 9곳 등 495곳
젓고 낙엽 쌓인 길 조심해야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에 낙석 주의보를 내리고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낙석위험지구 495곳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봄철 해빙기(2~4월) 동안 국립공원 내 낙석사고는 총 11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낙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한 국립공원은 북한산(2014년 1월, 2015년 6월), 설악산(2015년 8월)이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해빙기 전체 안전사고는 175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61명이었다.

공단의 안전점검은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설악산 등 21개 국립공원 601개 구간(1987km)의 탐방로 주변 급경사지 450곳과 협준한 산봉우리(암장) 45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21개 국립공원 급경사지를 위험 등급에 따라 위험도가 가장 낮은 A부터

■ 봄철 안전하게 산행하는 방법



일교차 대비 보온 의류·덧신(아이젠) 준비 | 심혈관질환자는 고지대 산행 삼가 |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으로 알릴 정보 확인

가장 높은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점검 대상 450개 급경사지는 E등급(매우 위험) 23곳, D등급(위험) 108곳, C등급(보통) 22곳, B등급(낮음) 90곳, A등급(매우 낮음) 4곳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D등급 3곳, C등급 4곳, B등급 2곳 등 총 9곳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시 탐방로에 설치된 낙석방지 시설,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우선 점검한다.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탐방로 주변 바위 균열, 뜬 돌 발생 여부도 살핀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지역으로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낙석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펜스 등 안전 시설 설치, 우회 탐방로 개설 등 탐방객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해빙기 낙석은 겨울에 얼었던 암석의 용해, 봄철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한 번 낙석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시설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봄철 해빙기 산에서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는 사고 유형이다.

특히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파악이 중요하다. 산행 시 공단은 낙석 가능성이 큰 설악산국립공원에 자동으로 암반 변위를 계속하는 ‘낙석계측시스템’을 2개 설치, 실시간 감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설악산 주전골 탐방로에서 암반변위가 관측(10mm)되어 우회탐방로를 만들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

거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낙석은 특히 발생지역 및 시기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탐방객 스스로 산행시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 구간으로 보일 경우 신속히 통과하고 노면이 젖은 탐방로의 경우 미끄러운 낙엽, 돌로 인한 발목·허리 부상을 주의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낙석사고 외에도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보온 의류를 준비하고 산에 올라야 한다. 고지대와 복사면의 탐방로는 결빙된 구간이 많아 눈길 덧신(아이젠)을 휴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고열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앓는 탐방객은 고지대 산행을 삼가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해야 한다.

공단은 탐방객 해빙기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기술을 접목한 ‘비콘(beacon)’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방객에게 알리는 ‘재난안전 알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App)’을 설치하면 추락위험 지역, 낙석발생 우려 지역, 낙뢰 다발 구간,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상습 결빙 지역 등 안전사고 알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워터 안내, 탐방객 안전수칙, 기상특보 발표 시 대피방법 등 주요거점 정보도 제공한다. 위험에 처했을 때 조난신고 기능을 사용하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봄 해빙기를 맞아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세레봉 일원에서 낙석 우려가 있는 암석을 제거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민 100명 “무등산 신선대 고유종 나무 심었어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무등산 훼손지 신선대 일원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1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나무심기 행사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신선대 폐목장 부지 2000㎡에 무등산 고유 수종인 때죽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묘목 800주를 심었다. 심은 나무에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이름을 새겨도 했다.

복원행사가 열린 신선대 일원은 폐목장부지로 생태계교란종인 도깨비가지, 애기수염이 널리 퍼져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제거작업이 펼쳐지기도 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는 “시민들과 식재한 나무는 2014년 무등산 내에서 고유 종자를 채취한 후 야생생물보호단이 길러 온 것으로 나무들이 무등산에 뿌리를 내리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사진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선박 연료수급 파악...해양오염사고 예방 팔 걷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종합대책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해양 중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 기간 목표한 해양오염사고 비율은 지난해 대비 40%라고 덧붙였다.

여수해경 관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84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 분석하면, 부주의 오염사고 36건(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선박 내기를 탱크 간 유류를 옮기다 넘치는 경우, 유조선 또는 유조선량으로부터 연료를 수급 받던 중 선원이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오염사고가 18건에 달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재발 방지 프로그램’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해양



지난해 8월 여수 국동항에서 연료를 수급 받던 선박에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경 등 관계당국이 긴급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해경은 이 사고 역시 선박 중사자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오염사고 때문에 청정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중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해경은 선박 내 연료수급과정에서 넘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유정보를

미리 파악해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예방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한 유류공·수급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상가 건물 매매 |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 감정가 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접
▶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문선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